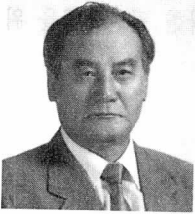


# 침엽수가 말라 죽어간다.

- 경북전역확산, 당국원인조사중 -



오 판 용 <본회이사>

지난 4년 동안의 가뭄끝에 올들어선 비가 자주내린 탓인지 경북도내 곳곳에서 소나무와 잣나무등 침엽수가 말라 죽는 괴현상이 일어나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중순경부터 경북의성(義城) 지역에서 소나무와 잣나무등이 1~5그루씩 군데 군데 말라 죽기 시작 하는 것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영천(永川), 청도(淸道), 청송(靑松), 성주(星州)등 도내 동서남북 전지역으로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다한다. 의성군의 경우 신평면과 안사면, 사곡면등지에서는 수십년된 소나무 수천그루가 고사했다한다.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와 약남리, 신녕면 치산리, 화남면 구전리, 북안면 반정리 곳곳에서도 소나무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나무 윗부분부터 잎과 줄기가 차례로 말라죽어가고 있다. 또 해인사로 통하는 고령군(高靈郡) 쌍림면 88고속도로변에서도 지난달부터 말라죽는 소나무의 수효가 불어나고 있다한다. 이와같이 침엽수만이 고사하는 지역은 대부분 암반지대이거나 토양이 척박한 곳이라는데 특수한 병해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이 최근 합동으로 침엽수 고사 원인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지역이 대부분 암반이 많은

척박한 지역으로 나타나 소나무와 잣나무 등 일부 침엽수가 변화가 심한 기상여건에 생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경북도 관계자 역시 「94년 부터 4년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올들어 비가 자주 내리자 얇은 토양층 밑에 암반이 있는 지역의 나무들이 침수등으로 인해 말라 죽는것 같다」며 「이달중순 현재 경북도내 피해면적은 6ha 정도로 추산되는데 피해확산 여부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독도, 주먹구구식 조림으로 향나무등 거의 고사

한편 침엽수 고사사태와는 별도로 지난 73년 부터 독도(獨島) 조림사업으로 심은 대부분의 나무가 말라 죽었으며 귀화식물이 번창하는 등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가 최근 독도를 현지답사한 결과 20여년 동안 6~7개 단체들이 심은 해송·향나무·동백 등 1만 2천 3백여그루의 나무들이 척박한 토양과 수분 부족등으로 거의 말라 죽었으며 현재 3백여그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다. 더욱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국화(國花)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식재했던 무궁화 2백여그루는 거의 고사하고 겨우 3~4그루만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95년 식목행사를 위해 울릉도 지역의 흙 2백여포대를 독도에 유입하면서 쓰레기터에 사는 잡초인 명아주가 묻혀 들어가는 바람에 동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등 외래식물종자가 흘러 들어갈 위험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교수 등 식물생태 전문가들은 독도가 화성암



에 의해 지표면의 온도가 높고, 강한 자외선, 조류의 배설물 등 다른 지역과 환경이 크게 다르므로 주먹구구식의 조림사업은 오히려 독도환경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독도에 인공적인 수림을 조성하더라도 독도 고유의 식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일·영유권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탐사팀의 일원인 영남대 조경학과 김용식교수는 「옛 문헌에 나무를 베어 땀감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독도의 숲이 울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독도의 고유수종을 체계적으로 조사 씨앗을 뿌려 육림하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산림계획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말했다(이상 매일신문·영남일보종합)

### 혹시나 일본열도 소나무망친 솔고사병(枯死病) 재선충(載線蟲)이 번져온 것 아닌지?

필자는 경북지방의 침엽수가 말라죽어가는 수상한 현지 신문 기사를 읽고 산림연구당국서 잠정결론을 내린 내용에 수궁이 가지 않는 점이 많아 혹시나 지난 88년 10월에 부산 금정산(金井山) 만덕계곡서 처음 발견된 무서운 재선충(載線蟲·일명 소나무 AIDS)의 그후 진행상태를 걱정하던 참이기에 경북으로 번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재선충의 무서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재선충피해가 아니고 당국자의 잠정결론처럼 가뭄끝에 자주내린 강우로 인해 침엽수가 기상여건에 적응치 못하고 대부분 암반이 많은 척박한 지역이라 고사한 것으로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거의 척박한 암반지역에서 잘 자라



며 비도 전국 고루 왔었는데 하필이면 경북지역에서만 이러한 소나무 등 침엽수피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고사목의 토막을 산림청이나 일본 산림청(재선충 피해는 최초 부산시의 신고를 받아 산림청 임업연구원서 일본산림청에 의뢰 고사원인이 재선충피해로 판명)에 의뢰 조기규명하여 방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재선충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슬고사병(枯死病)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지난 1988년 12월말에 발간된 국립공원지 통권 41호 20페이지 「거미줄」란에 필자가 취재 기재한 기사의 요지를 적는다.

### 한마리가 20일후 20만 마리로

재선충은 번식속도가 빨라 한마리가 20일만에 20만 마리로 초고속으로 번식, 매개충인 공생관계에 있는 「해송수염치레하늘소」를 통해 순식간에 다른 소나무로 번지기 때문에 수년내에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노송이 많은 지역이 피해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해충의 피해가 처음 나타난것을 부산일보는 7월이라 했고 경남신문은 인근 주민의 말을 인용 4~5년전 부터라 보고 있다. 처음엔 몇 그루 안되어 시와 산림당국이 방심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금정산(金井山) 만덕터널 일대의 70~100년생 소나무 20여그루가 이유없이 말라죽기 시작한 것이 88년 7월 초순께였다고 B신문은 적고 있다. 5개월후인 그 해 12월엔 소나무 500여 그루가 고사했다 하니 무서운 번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고사목 불태우고 매개충 죽여야

방제는 피해 고사목을 베어 태워버리고 「재선충」의 전파매개충(傳播媒介蟲)인 「해송(海松)수염치레하늘소」를 약제살포로 죽이는 방법외는 별다른 방제방법이 없어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다. 일본의 경우처럼 전국에 만연

되면 국내 산림수종의 80% 이상이 소나무인 우리나라 산림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1905년 나가사끼縣에서 처음 발견되고 1972년에야 그 원인이 재선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방제가 어려워 현재 북해도(北海道) 일부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국토의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라 한다.

### 소나무재선충

몸길이가 0.6~1mm에 불과하여 육안 식별이 어렵다한다. 소나무에만 기생하여 한달이내에 세포조직을 완전파괴시킨다. 자력이동능력이 약해 매개충인 「해송수염치레하늘소」의 몸에 붙어 이동번식 한다.

### 해송수염치레하늘소

성충의 몸길이가 2.2~3cm 1마리당 소나무 재선충 1만5천마리 이상씩 보유, 보유율 70% 1회비행거리 100m안팎.

한편 당시 산림청 산림병충방재계 이철수(李哲洙)임업기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언젠가 침투할 것으로 경계해 왔었다」면서 지난 10월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동래지역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언명한 바 있다.

고사목을 불태우고 (註 : 수백그루의 노송을 어디서 어떻게 불태울 것인지 는 미지수) 지상방제와 내년 6월경 항공방제를 잘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재선충과 해송수염치레하늘소는 공생관계의 매개충인데 이 매개충을 박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염이 길다고 수염치레하늘소라 불리우는데 날개가 딱딱하여 100m정도 밖에 날아가지 못하는 점에 유의하여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다.▲▲